

李-朴 재보선 참패 '자숙' 하나

경선 관련 일정 중단 등 정치적 행보 자제

'의원 출서기' 비난 거세 대권 보폭 좁아질 듯

한나라당의 4·25 재·보궐선거 참패로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총격에 휩싸인 분위기가...

특히 이번 재보선이 올 연말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강조해온 이들로서는 '대선 3수' 실패의 원인제공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대선주자는 일단 '자숙 모드'로 들어갔다. 일단은 숨죽이고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시장은 당초 26일부터 이를

일정으로 부산 출장을 예정했으나 이날 새벽 선거 윤곽이 드러나자 전격 취소한 것은 물론 캠프사무실 여의도 이전, 지방 당원회의도 간담회 등 모든 경선 관련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었던 박 전 대표도 당간은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면서 재보선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의 재보선 '불패신화'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양 캠프의 분위기는 미묘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이 "총

격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인 데 비해 '올인'한 대전서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던 박 전 대표 진영은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재보선 논쟁에서도 이 전 시장은 "저를 포함해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박 전 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였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빅2'가 만들어낸 작풍"이라는 한 당직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두 대선주자의 당내 입지도 강세집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 못지 않게 상당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노골화되고 있는 '의원 출서기'에 대한 비난도 거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대결극면은 당이 수습되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지지율 1, 2위 대선주자로서 당내 경선을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로서는 당내 계파싸움이 불가피하고 경선 물줄기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선 참패로 인해 경선 물줄기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때 이른 관측까지 나오면서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정치 행보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물밑 수 싸움'은 중단없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업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김홍석 원내대표에게 당선인사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그렇게 반감계 맞아 준 적 없었다"

DJ-홍업씨 어제 비공개 '부자 상봉' 범여권 통합관련 어떤 복안 나올지 관심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씨가 26일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자격으로 김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동고동 김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려 했으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방문시간을 들연 오전으로 변경, 비공개로 김 전 대통령과 30여분간 면담했다.

부자 상봉에는 배석자 없이 김 전 대통령 내외와 김씨 내외만 참석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김씨의 당선인사를 받은 뒤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무척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김 당선자는 면담을 마친 뒤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박찬천 대표 등을 만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처음 봤다. 평생 그렇게 반감계 저를 맞이해준 적이 없었다"며 김씨 당선을 바라보는 DJ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씨의 당선으로 DJ의 대리인이 여의도 정계에 등장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범여권 통합론 등에 초점을 맞춰 '부자 상봉'에 관심을 기울였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통합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양강구도에 기반한 단일정당과 단일후보를

를 강조해왔고, 김씨도 당선소감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두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DJ 훈수정치 본격화', '김홍업 역할론' 등 정적권의 분석에 대해서도 김씨를 비롯해 김 전 대통령 측, 동고동계 인사들 모두 언급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과 관련된 말씀은 없었다"며 "이제는 당인(黨人)으로서 책임있는 얘기를 해야 하고 당론을 따라야 한다"며 말을 삼갔다. /임동욱기자 tuim@

김덕룡 "무안·신안서 희망을 봤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26일 4·25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선거는 참패지만 무안과 신안에서 희망의 빛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 입구 인근에서 열린 한나라당 후보 담화 및 당원 무등산 등반 대회에서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은 후보에서 최소 2자리 지지율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11.9%를 득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무안과 신안 등 후보 유권자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

고 다음 대선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지역구가 호남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내에 호남출신 대선 의원이 드물다"며 "한나라당 내 호남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선과 관련해 "(나도) 한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당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능력있는 좋은 후보가 많은데 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바른 방향으로 가는 대통령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북도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비롯, 호남지역 당원들이 26일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무안·신안 보선 10% 이상 득표를 축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의협비리 어디까지 갈 델까

검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선 가운데 전 집행부 관계자가 의협의 수석의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일단 "의협이 제기된 부분이 압수물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료도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 집행부 횡령은 '새발의 피'(>=전 의협 집행부 관계자 A씨는 이날 "전임 집행부가 2003년부터 3년여간 73억원의 용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불가피 의협 법인카드 지출 경위도 쫓는다

다. 의혹이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100여억원을 예치해 두고 있는 모 은행 PB센터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줌으로써 의협의 분식회계를 도왔다는 것.

A씨는 현 집행부의 횡령 규모는 전 집행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도 했다. A씨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담긴 회계장부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제보를 계기로 1999년 창립

가 어떻게 밝혀질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이 의협 법인 신용카드 지출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확인한 만큼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신용카드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의 법인카드가 작년 11월부터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수천만원 가까이 결제된 점, 특히 장 회장이 지방 집회에 참석했던 2월11일 오후 종로의 요정에서 수백만원이 사용된 점 등의 진상이 어떻게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인카드를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건네 쓰도록 했다는 장 회장의 진술로 미뤄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좌관과 의협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고 로비의 실제 일부가 확인될 수 있다. /연합뉴스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을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전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해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동아외국어학원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수의 거리 한빛문 사거리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0505-313-1515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 도전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79급 공무원전강좌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강사진! 누가 뭐래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 > 5월 1일 (주/야간반)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지매학원: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262-3553)